

## 정열가, 독학가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8년 7월 어느날 어랑군의 책임일군을 만나주시었을 때  
있은 일이다.

뜻밖에도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일군은 걱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이러한 일군을 정깊게 바라보시며 군당사업에서 힘을 넣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을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군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일군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당중앙의 높은 뜻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  
하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여 일군은 경애하는 그이께 아직까지 도시경영에 대한 견해와 실무가 원만히  
따라서지 못하는 자신의 준비정도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은 박식가, 사업에  
서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시였다.

당일군들은 정열가, 독학가가 되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